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41

JRI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 www.jri.re.kr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経済新聞

※ 대상 기간 : 2025.05.15~2025.05.21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1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 6

▪ 중국

- 장쑤성, 35개 중점 과제 통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추진 ····· 6
- 2025 상하이 국제 탄소중립 박람회, 민영 경제 특별 구역 최초 설치 ····· 6
- 국가 통계국: 4월 국민 경제, 압력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 지속 ····· 7
- 《중국 금융 정책 보고서 2025》, 중국 금융 개혁 5대 중점 제안 ····· 8
- 공업정보화부: 중국, 글로벌 기술 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 구축 ····· 8
- 인공지능, 도시 역량 도약 견인 ····· 9
- 《요식업 촉진 및 경영 관리방법》 개정 발표 ····· 10
- 디지털 지능 협력, 제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 10
- 중국 공업정보화부, 다각적인 고용 촉진 조치 발표 ····· 11
- 톈진시, 비즈니스 환경 추가 최적화를 위한 21개 조치 발표 ····· 11

▪ 일본

- 도쿄도,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수거 비용 전가 지원 ····· 12
- 오키나와현, 2050년까지 현내 총생산 두 배 목표 설정 ····· 13
- 이시바 총리, 양자 연구 분야에서 연내 5개국과 협력 협정 체결 발표 ····· 13
- 시마네현 이즈모시, 외국인 유치로 기업가 육성 추진; 카가와현 미토요시, 창업 강좌 운영 … 14

- 오이타현 LID, 외국인 관광객 분실물 반송 대행 서비스로 숙박 시설 부담 경감 · 15
- 하마마츠 하수처리장, 폐열 및 여유 정화 능력 활용한 장어 양식 시험 시작 ····· 16
- 치바현 이치카와시, 탈탄소 선도 지역 선정; 임대 주택 단열·태양광 추진 ····· 16
- 도쿄도, 중소기업 대상 CO_2 배출권 거래 시스템 개설 ····· 17
- 구마모토현, 트럼프 관세 대응 중소기업 융자 제도 6월부터 시행 ····· 18
- '드론×AI'로 스마트 농업: 일본공업대학, 수분 작업 자동화 추진 ····· 19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러시아와 석유·가스·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모색 ····· 19
-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비즈니스협회, 말레이시아 기관들과 20건의 양해각서 체결 20
- 말레이시아, 한국 개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서 다자무역 강화 추진 ···· 21

■ 태국

- 태국, 50억 바트 규모 디지털 투자 토큰 발행 추진 ····· 21

■ 캄보디아

- 캄보디아, 한국과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 22
- 캄보디아, 농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 22

■ 라오스

- 라오스 비엔티안 남부역, 동남아시아 과일 물류 허브로 부상 ····· 23
- 라오스, 수출 확대를 위한 할랄 인증 프로젝트 착수 ····· 24

■ 베트남

- 베트남, 자동차 산업 성장 가속화 속 도전과제 직면 ····· 24
- 베트남·러시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정 체결 가속화 ····· 25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장쑤성 정부는 '장쑤성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행동 방안(2025년 버전)'을 발표하며, 요소 서비스, 정책 보장, 정무 서비스 등 35개 중점 과제와 85개 세부 실천 계획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

✓ 2025 상하이 국제 탄소중립 박람회가 6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박람회는 녹색 저탄소 기술 성과를 종합적으로 선보이고 민영 경제 특별 구역을 최초로 조성하여 산업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목표

✓ 4월 중국 국민 경제는 외부 충격과 내부 어려움 속에서도 생산과 수요의 안정적 증가, 고용 상황의 전반적 안정, 새로운 성장 동력 축적을 통해 압력을 견디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한 모습

✓ '중국 금융 정책 보고서 2025'는 중국 금융 시스템이 내외부 압력 속에서 개혁을 가속화하고 시스템 회복력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며, 금융 자원 배분 최적화, 중앙은행 제도 개선, 감독 강화 등 5대 개혁 중점을 제시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5G 응용이 국민 경제 86개 분야에 통합되고 공업 인터넷이 41개 공업 대분류 전체를 커버하는 등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규모가 가장 큰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발표

✓ 인공지능은 도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푸저우 옌타이산 역사 문화 거리의 '네트워크 인원 이동 지능형 기지국'과 같은 혁신 사례를 통해 도시의 지능화 발전을 가속화하며 생산, 생활,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

✓ 상무부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요식업 촉진 및 경영 관리 방법'을 개정 발표하며, 요식업 촉진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식품 낭비 방지 요구

사항을 세분화하며, 안전 생산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요식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

✓ **중국 제조업은 디지털화 및 지능화 전환을 가속화하며, 특히 디지털 제품 제조업과 지능형 장비 제조업의 판매 수입이 크게 증가.** 이는 전통 제조업의 '지능화 및 디지털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 효율성과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5년 고용 촉진 중점 과제를 논의하며,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유지**, 신흥 산업 육성, 우수 기업 주체 육성, 고용 매칭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신형 공업화가 고용을 창출하고 흡수하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계획

✓ **톈진시는 '비즈니스 환경 추가 최적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총 21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 이는 시장, 혁신, 법치, 요소, 정무, 사회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며, 기업의 혁신 지위 강화 및 정무 서비스 효율성 향상을 목표

○ 일본

✓ **도쿄도는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전가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3년간 보조**하고, 계약 재검토 매뉴얼과 상담 창구를 제공하여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

✓ **오키나와현 'GW2050 프로젝트 추진 협의회'는 2050년까지 명목 현내 총생산(GDP)을 현재의 2.2배인 11조 엔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반환 예정 미군 기지 800헥타르를 활용하여 관광 및 첨단 의료 등 연구 개발 거점을 집적시키는 그랜드 디자인을 발표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025년 중 양자 연구의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해 새로 5개국과 연계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히며, 양자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중국의 투자에 대응하여 2025년을 '양자 산업화 원년'으로 선언

✓ 시마네현 이즈모시와 카가와현 미토요시가 기업가 배출 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보이며, 시마네현은 개업 자금 보조와 외국인 기업가 유치를, 카가와현은 '미토요 창업 카페'를 통해 창업 교육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활력과 젊은 세대 유입을 도모

✓ 오이타현의 로스트 아이템 딜리버리(LID)는 외국인 관광객(인바운드)의 분실물 반송 대행 서비스 '와스라쿠'를 제공하여 숙박 시설의 부담을 줄이고, 2030년까지 연간 취급 건수 10만 건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며 일본 관광객에게 긍정적 인상 조성

✓ 하마마츠 워터 심포니(HWS)는 하마마츠시 하수처리장에서 폐열 및 여유 수처리 능력을 활용한 장어 양식 파일럿 사업을 시작하며,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기존 양식업의 한계에 대응하고 하수도 사업의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을 목표

✓ 치바현 이치카와시는 탈탄소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 임대 주택의 단열 성능 강화와 태양광 패널 설치 가속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창조 에너지'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주거 환경 및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도쿄도는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CO_2 배출권 거래를 위한 독자적인 탄소 크레딧 마켓을 무료로 개설. 이는 국내 지자체 최초의 시도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2050년까지 CO_2 배출 실질 제로 목표 달성에 기여

✓ 구마모토현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제도를 6월 2일부터 시행. 이는 관세로 인한 매출 감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낮은 금리와 융자 한도를 제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

✓ 일본공업대학은 드론과 AI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과수원 및 채소밭의 꽃 수분 작업을 자동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 이는

수분 가능한 꽃을 AI로 판별하고 드론을 통해 정밀하게 꽃가루를 분사하여 농작업의 노력 절감을 목표

○ 말레이시아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5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천연가스 및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합작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

✓ 지난 5월 13일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비즈니스협회(MCBA)가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위해 20개 말레이시아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비료,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의 말레이시아 기업 100개사 이상이 캄보디아 시장 진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이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무역 장벽을 논의하고,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계획을 밝히며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태국

✓ 태국 재무부장관이 5월 13일 향후 2개월 내 50억 바트(약 2,100억 원) 규모의 신규 디지털 투자 토큰인 'G토큰(G Token)' 발행 계획을 발표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일반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태국 정부의 첫 번째 디지털 자산 정책

○ 캄보디아

✓ 5월 12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이 캄보디아 국립폴리테크닉대학(NPIC)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포함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캄보디아 정부가 기술 인력 150만 명

양성을 목표로 기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일본 정부 지원으로 농업 디지털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의사결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FAO와 트웬테대학이 공동 개발한 위성 데이터 기반 AI 도구 교육 진행

○ 라오스

✓ **2025년 5월 기준, 라오스 비엔티안 남부역은 하루 2,000톤 이상의 열대 과일을 처리하며 동남아 지역 핵심 철도 유통 허브로 자리매김.** 철도 운송을 통해 기존 5~7일 소요되던 운송 시간이 55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어 부패율 감소 및 품질 유지에 기여

✓ **라오스 중소기업진흥청이 5월 12일 수출 확대를 위한 '할랄 인증 생산성 향상 시범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지원을 받아 라오스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슬림 시장으로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점

○ 베트남

✓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부상하지만, 총 생산 부품 중 20%만이 현지 조달되는 낮은 현지화율 문제에 직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내 자동차 수요를 늘리고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하려는 목표

✓ **5월 11일 베트남과 러시아가 베트남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정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베트남 정부는 전력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약 10년 전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소 개발 계획을 재개. 이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장쑤성, 35개 중점 과제 통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추진 - 장쑤성 정부는 '장쑤성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행동 방안(2025년 버전)'을 발표하며, 요소 서비스, 정책 보장, 정무 서비스 등 35개 중점 과제와 85개 세부 실천 계획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려는 노력 - 장쑤성은 '법치가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이념 아래, '장쑤성 민영 경제 촉진 조례' 등 지방 법규 제정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민영 경제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12345 민원 서비스 개선에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방향 - 장쑤성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목표로 정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 처리 방식의 다양화, 절차의 최적화, 서류의 간소화, 비용의 최소화를 실현하고자 함. 아울러, 기업들이 혜택 정책을 찾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렵고 신청 방법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기래판' 플랫폼을 기업 서비스의 총괄 입구이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총괄 고객센터'로 구축할 계획
	❍ 2025 상하이 국제 탄소중립 박람회, 민영 경제 특별 구역 최초 설치 - 2025 상하이 국제 탄소중립 기술, 제품 및 성과 박람회가 6월 5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 신국제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 - 이번 박람회는 '탄소 중립을 향한 길'을 주제로, 주제 전시, 시리즈 포럼, 무역 상담의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 주제 전시는 에너지 전환, 저탄소 교통,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증대, 순환 경제, 저탄소 서비스, 실천 탐색 등 6개 주요 분야를 포함 - 특히, 이번 박람회는 '녹색 신세력'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 민영 경제 특별 구역을 처음으로 조성하여, 탄소 중립의 다양한 응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시나리오에 특화된 다수의 전문화된 정밀 기업 및 첨단 기술 기업을 집결. 이는 생산 공정의 혁신부터 소비 시나리오의 적용까지, 기술 혁신부터 모델 혁신까지 민영 경제의 활발한 창의력을 통해 산업의 녹색 전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시
	❍ 국가 통계국: 4월 국민 경제, 압력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 지속 - 4월 중국 국민 경제는 외부 충격 확대와 내부 어려움이 겹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당 중앙과 국무원의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기조를 유지.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구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가속화하여,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고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시행하며 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 생산과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축적되는 양상 - 4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으며, 장비 제조업과 하이테크 제조업은 각각 9.8%, 10.0% 증가하여 전체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나타냄.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고,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현대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 시장 판매는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재활용 신상품' 관련 상품 판매가 특히 빠르게 성장 -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고정 자산 투자(농가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제조업 투자가 빠르게 증가. 화물 수출입 총액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으며, 무역 구조는 계속 최적화. 민영 기업의 수출입은 6.8% 증가하여 전체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4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5.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여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유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금융 정책 보고서 2025》, 중국 금융 개혁 5대 중점 제안 - '중국 금융 정책 보고서 2025'가 2025 청화 오도구 글로벌 금융 포럼에서 발표되며, 중국 금융 시스템이 내외부 압력 속에서 개혁 속도를 가속화하고 시스템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해야 함을 강조. 보고서는 중국 금융 개혁의 다섯 가지 중점을 제시 - 보고서가 제안한 다섯 가지 중점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금융 자원 배분 최적화와 금융 환경 안정 유지. 둘째, 중앙은행 제도 조속히 개선 및 통화 정책 전달 메커니즘 원활화. 셋째, 감독 강화, 감독 보장 메커니즘과 조기 시정 제도 구축 추진, 모든 금융 활동을 법에 따라 감독 범위에 포함. 넷째, 금융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 및 금융 서비스 품질 향상. 다섯째, 높은 수준의 금융 개방 추진 및 금융 강국 건설 가속화 - 특히, 딩즈제 중국 중앙은행 금융 연구소장은 인민폐 국제화의 견고한 추진과 국제 금융 센터 건설 가속화를 강조. 인민폐 국제화는 국경 간 결제, 융자, 투자 및 준비 통화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하며, 역외 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강화 및 역외 인민폐 상품 개발을 통해 국제 금융 센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공업정보화부: 중국, 글로벌 기술 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 구축 - 5월 17일, 2025년 세계 전기통신 및 정보 사회의 날 기념 행사에서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장운명은 중국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규모가 가장 큰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발표 - 5G 응용은 97개 국민 경제 대분류 중 86개 분야에 통합되었으며, 공업 인터넷은 41개 공업 대분류 전체를 커버하며 인공지능, 저공 경제 등 분야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여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 - 장운명 부부장은 정보 통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전면적인 혁신 요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 과학 기술 중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프로젝트의 조직적인 이행을 강조. 5G-A, 6G 기술 연구 개발, 산업 육성 및 응용 발전을 가속화하여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에 힘을 실어주고자 강조
중국	❍ 인공지능, 도시 역량 도약 견인 - 푸저우 옌타이산 역사 문화 거리에서는 1.6만 명의 모바일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도 방문객들은 4K 영상, AR(증강 현실) 가이드 등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푸저우 모바일의 '네트워크 인원 이동 지능형 기지국' 덕분. 통신 대형 모델을 통해 네트워크 수요를 동적으로 분석하고, 통화량 분포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인파와 네트워크'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기여 - 국가 데이터국 천롱후이 부국장은 인공지능이 도시 디지털 전환 기반의 중요한 핵심 역량이며,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기본 연료라고 강조. 산업 응용과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인공지능의 진화와 보급을 촉진하는 핵심 고리이며, 도시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견고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 디지털 전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품질 데이터 공급을 풍부히 하며, '인공지능+' 응용을 혁신해야 하는 과제 - 현재 컴퓨팅 파워 및 인공지능 대형 모델의 추진으로 도시들은 지능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각지에서 이미 적극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는 중. 특히 2024년 3월 레노버 도시 초지능체가 푸젠성 우이산과 후베이성 이창에 각각 정착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도시 관리의 심층적인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실천 사례를 보여줌. 또한, 랑차오 클라우드는 12345 정무 서비스 지능체를 구축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규범적이고 지능적인 정무 서비스 '총괄 고객센터'를 지향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요식업 촉진 및 경영 관리방법》 개정 발표 - 상무부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공동으로 '요식업 촉진 및 경영 관리 방법'을 발표. 이 방법은 6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요식업 경영 관리 방법(시행)'은 동시에 폐지 - 새로 개정된 방법은 총 25개 조항으로, 기존 방법보다 1개 조항이 추가. 상무부 서비스 무역 사장은 이번 방법 개정으로 요식업 촉진 내용이 대폭 증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반식품 낭비법' 관련 요구 사항이 세분화되고, 기업 관련 규정이 조정 및 규범화되었으며, 안전 생산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요식업 관리 메커니즘 완비와 고품질 발전에 중요한 의미 - 새로운 개정 방법은 요식업의 대외 교류 협력, 디지털 발전, 표준 제개정, 지역 특색 요식업 육성 등 분야의 장려 조항을 추가. 또한, 지방 상무 주관 부서의 직책에 촉진 정책 조치 수립 및 시행, 업무 조정 메커니즘 구축 및 완비, 표준 체계 완비, 촉진 플랫폼 구축 및 육성 등 내용을 추가하여 요식업의 고품질 발전을 강력히 추진
	❍ 디지털 지능 협력, 제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디지털 제품 제조업 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지능형 장비 제조업 판매 수입은 13.2% 증가하여 중국 제조업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영. - 최근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제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강력히 추진하며, 전통 제조업의 '지능화 및 디지털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 국가 차원에서는 '전통 제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제조업 디지털 전환 행동 방안' 등 여러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어 제조업의 종합 경쟁력과 디지털 지능화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제조업의 디지털 지능화 전환은 생산 효율성 향상, 생산 비용 절감, 제품 품질 강화, 기업의 수익성 및 핵심 경쟁력 증대로 이어짐. 그러나 일부 기업의 인식 부족, 표준화 미흡 등 단점도 존재. 앞으로는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지능화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건전한 체제 메커니즘 구축, 자원 공급 시스템 최적화, 성과 평가 지표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 지능화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노력
	❍ **중국 공업정보화부, 다각적인 고용 촉진 조치 발표** - 중국 공업정보화부 리러청 부장은 5월 19일 부 고용 촉진 업무 지도 그룹 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고용 촉진 업무의 중점 과제를 논의 - 회의에서는 중점 분야 및 산업에 집중하여 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더욱 발휘하고, 잠재력 발굴 및 확대, 품질 향상을 통해 구조적 고용 문제 해결을 추진하며, 신형 공업화가 고용을 창출하고 흡수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 - 회의에서는 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고용 규모를 안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새로운 중점 산업 안정 성장 계획을 실행하고, 중점 산업 기업의 기술 개조를 강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잠재력을 발굴하고 직업 능력 향상 및 전환 등을 추진
	❍ **톈진시, 비즈니스 환경 추가 최적화를 위한 21개 조치 발표** - 톈진시 정부 신문판공실이 5월 19일 개최한 '비즈니스 환경 추가 최적화' 정책 브리핑에서, 톈진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비즈니스 환경 추가 최적화에 관한 의견'을 작성했으며, 이는 시 위원회 판공청 및 시 정부 판공청 명의로 발표되어 총 21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 - 톈진시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류타오는 '의견'이 주로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 활기찬 혁신 환경, 공정하고 공정한 법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환경, 우수하고 원활한 요소 환경,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무 환경,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등 여섯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고 소개 - 혁신 환경 측면에서 '의견'은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 기술형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제정. 과학 기술 성과 이전 및 전환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직무 과학 기술 성과 자산 분리 관리 제도와 직무 과학 기술 성과 권한 부여 개혁을 심화. 투자 펀드의 과학 기술 혁신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제정하며, 정부 투자 펀드의 견인 역할을 발휘하여 사회 자본이 과학 기술 혁신형 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계획
일본	❍ 도쿄도,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수거 비용 전가 지원 - 도쿄도는 지자체가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대해,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전가를 지원.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경비를 도가 3년간 부담하고, 위탁처와의 계약 재검토를 위한 매뉴얼 및 상담 창구를 제공 - 2025년부터 비용 상승분 일부 보조를 구시촌에 시작. 지원 대상에 공휴일 및 연말연시 임금 할증또는 휴일 수거 폐지에 따른 경비 증가도 추가하여 현장의 노동 환경개선을 도모. 대상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 수거 비용이며, 기업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계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은 대상에서 제외 - 도의 보조 기간은 3년. 1년차 보조율은 2분의 1(최대 3천만 엔), 2년차는 3분의 1, 3년차는 4분의 1로 단계적으로 보조율을 인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가격 전가를 망설이는 구시촌을 지원하여, 수거 및 운반 사업자와의 위탁 계약 재검토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일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는 기초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오키나와현, 2050년까지 현내 총생산 두 배 목표 설정 - 오키나와현의 기업 및 경제 단체로 구성된 'GW2050 프로젝트 추진 협의회'는 19일, 현 경제의 장래를 그린 그랜드 디자인을 발표. 2050년까지 명목 현내 총생산(GDP)을 현재의 2.2배인 11조 엔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 반환 예정인 미군 기지 800헥타르를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성장시키는 한편, 첨단 의료 등 연구 개발 거점을 집적시키는 계획 - 협의회는 반환 예정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본섬 중남부의 일체 개발과 나하 공항(나하시)의 확장으로 2050년의 경제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설정.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전 단계로, 수치 목표를 먼저 정리. 오키나와현의 명목 GDP는 2024년에 4.9조 엔이었으며, 연평균 3.2%의 경제 성장으로 2050년에 11조 엔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개발의 중심은 미군 후텐마 기지, 나하 항만 시설, 마키미나토 보급 지구로, 이들 모두 반환 예정이며 면적은 총 약 800헥타르에 달함. 나하 공항을 포함한 4곳을 '가치 창출 중요 거점'으로 지정. 구체적인 산업의 축으로는 관광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양식 및 바이오 분야 등 해양 자원 활용, 첨단 의료, 항공・우주 등 4가지를 제시
	❍ 이시바 총리, 양자 연구 분야에서 연내 5개국과 협력 협정 체결 발표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8일, 양자 연구의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2025년 중 새로 5개국과 연계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표명. 유럽 등 우방국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대응을 의식한 움직임. 이미 협정을 체결한 미국과는 "시스템 개발 및 공급망 강화 등 구체적인 연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앞서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새로운 거점인 '양자・AI 융합 기술 비즈니스 개발 글로벌 연구 센터'(G-QuAT)를 시찰. 개발에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참여하는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인공지능(AI)과의 연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 이 거점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며, 이날은 본부동 낙성식이 진행. 후지쓰의 첫 상업용 양자 컴퓨터와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 등 최신 연구 환경을 구축 - 일본은 양자 분야에서 2019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한 미국에 이어 2025년 1월 덴마크, 4월 영국, 5월 유럽 연합(EU)과 협력 각서를 체결. 총리는 “5월 말 정부의 양자 전략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2025년을 ’양자 산업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설명. 2030년까지 양자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이용자 수를 총 1000만 명으로 늘리고, 생산액은 50조 엔 규모를 목표로 설정
일본	❍ 시마네현 이즈모시, 외국인 유치로 기업가 육성 추진; 카가와현 미토요시, 창업 강좌 운영 - 주고쿠・시코쿠 지역에서도 기업가 배출 능력이 높아지는 추세. 각 도도부현에서 지자체 지원으로 탄생한 기업가 수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비교한 결과, 돗토리현이 전국 1위, 시마네현이 3위, 오카야마현이 6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포진. 시코쿠에서는 카가와현이 가장 높은 순위. 지역 경제 활력 향상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정착 및 유입을 목표로 각 지역이 지혜를 모아 성과를 내는 중 - 시마네현은 산간벽지나 낙도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개업 자금의 절반을 보조하는 등 창업 지원에 주력. 현 상공회 연합회도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며, 2024년도 이용 건수는 2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음식점이나 복지 관련 등 개인 창업이 두드러지는 현상. 동현 이즈모시는 외국인 기업가 유치를 위해 이즈모 상공회의소와 동유럽 IT 엔지니어 소개 등을 담당하는 피플 클라우드(People Cloud)가 연계하여 상담 창구를 개설 - 카가와현 미토요시 상공회는 매년 1월과 8월에 ’미토요 창업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카페'를 개최. 내용은 창업의 마음가짐부터 회계·세무 기초, 자금 계획 및 판촉 전략,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까지 폭넓은 범위. 전문 강사의 총 7개 강의 15시간 과정. 2024년에는 수강생 42명 중 14명이 창업. 고치현은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였지만, 2023년도 창업 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여 전국 평균인 4% 증가를 크게 상회
일본	❍ **오이타현 LID, 외국인 관광객 분실물 반송 대행 서비스로 숙박 시설 부담 경감** - 외국인 관광객(인바운드)의 분실물 반송을 대행하는 로스트 아이템 딜리버리(LID, 오이타현 벳푸시)가 호텔 등과의 계약 건수를 늘리는 중. 해외로 반송하는 경우, 국가별로 다른 수입 금지 품목 해당 여부 조사 등도 담당하여 고객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 방일 외국인 관광객증가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취급 건수 10만 건을 목표 - 이 회사는 주로 전국 각지의 숙박 시설과 계약하여 분실물 반송 대행 서비스 '와스라쿠'를 전개. 먼저 소유주로부터 '분실물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숙박 시설이 분실물을 확인하고 LID에 연락하는 방식. LID는 소유주와 이메일로 연락하며, 반송 방법 및 요금에 합의. 대금 입금 확인 후, 숙박 시설이 LID에 분실물을 착불로 발송하면, LID가 포장하여 본인에게 국제 우편으로 반송. 이때, 국가별로 다른 배송 금지 품목이나 적절한 배송 방법 확인 등 숙박 시설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LID가 담당 - 소유주가 지불하는 반송 요금은 건당 8천~1만 엔. 분실물은 의류나 귀금속이 가장 많고, 일본 기념품이나 현금 등도 눈에 띄는 편. 약물 등 불법 물품 취급 위험에 대해서는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로 사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여 법률 위반을 방지하는 데 주의. 현재는 대형 호텔 그룹 등 약 1000곳과 계약 중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이며, 도쿄가 가장 많은 지역. 현재 연간 취급 건수는 약 1만 건이지만, 렌터카 회사나 음식점, 레저 시설 등과의 계약도 늘어나 2030년에는 연간 약 10만 건으로 확대 목표
일본	❍ **하마마츠 하수처리장, 폐열 및 여유 정화 능력 활용한 장어 양식 시험 시작** - 하수처리 시설에서 장어를 양식하는 시도가 시작. 하마마츠시에서 하수처리장 '니시에이 정화 센터'를 운영하는 하마마츠 워터 심포니(HWS, 하마마츠시)가 14일, 장어 양식파일럿 사업을 시작했다고 발표. 하수도 사업자 및 양식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목적 - 사업의 목표는 ①하수도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②지속가능한 장어 양식, ③하수 및 양식업에 대한 이해 증진 등 세 가지로 설정. 장어 성장을 위해서는 히트 펌프 등을 이용한 온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사업자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화석연료 의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반면, 하수도 사업자들은 오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인구 감소로 인한 수처리 능력의 여유분 활용이 과제 -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HWS와 하마나코 양어 어업 협동조합(하마마츠시)은 2024년 4월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 HWS가 실험 관리 및 운영, 결과 정리 담당. 조합은 기술 지도 외에 출하 기준에 미달하는 장어를 제공. 약 3년간 비용 대비 효과 및 기술적 우위를 검증하고, 2028년 3월 시험 결과를 정리할 계획
	❍ **치바현 이치카와시, 탈탄소 선도 지역 선정; 임대 주택 단열·태양광 추진** - 치바현 이치카와시는 탈탄소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 에도가와 강과 접한 묘덴 지구에서 임대 주택의 단열 성능 강화와 태양광 패널 설치 가속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창조 에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너지'라는 두 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달성을 목표. 부동산의 자산 가치 및 주거 환경 향상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국에서도 드문 임대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력 - 시가 국가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지역 내 기존 임대 다세대 주택 약 2500세대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계획 포함. 창문 및 문 등의 단열 개보수를 추진하고, 시가 설정한 단열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육아 가구에 독자적인 월세 보조금 지급. 향후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할 예정 - 시가 2월 케이요 가스 등과 설립한 지역 신전력 회사를 통해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발생한 열로 생산한 전력도 공급할 예정. 시내 공원에 전기 자동차(EV) 충전 설비를 설치하여 EV 도입 분위기 조성도 도모. 탈탄소 선도 지역은 2030년까지 가정 및 업무 부문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타 지역의 모델이 되는 사업을 국가가 지정하여 최대 50억 엔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도쿄도, 중소기업 대상 CO_2 배출권 거래 시스템 개설 - 도쿄도는 이산화탄소(CO_2) 감축량 거래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설. 이용료는 무료이며, 국내 지자체 최초의 시도.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이용을 촉진하는 목적. 하지만 개설 후 한 달 반 동안 매매는 아직 성립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도쿄도는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는 중 - '도쿄도 탄소 크레딧 마켓'은 브라질에서의 산림 보호 프로젝트, 베트남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의 메탄 배출 회피 노력 등 해외의 '자발적 크레딧'과 국가가 인증하는 'J-크레딧'을 취급. 전자상거래(EC) 사이트처럼 가격이나 신뢰성에 관한 등급, CO_2 배출을 어떻게 감축하는지 등의 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 블록체인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전자 증표)화하여 크레딧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며, 거래 이력을 암호화하여 부정 방지 - 기존에는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크레딧 인증 기관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고, 일부 기관은 일본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도쿄도 시스템은 일본어로 여러 인증 기관에서 구매 가능. 주로 중소기업 대상이지만, 대기업도 이용 가능. 일본 상공회의소와 도쿄 상공회의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6%가 자체 온실가스 측정 또는 감축 목표 설정을 거래처로부터 요구받는 상황
일본	❍ **구마모토현, 트럼프 관세 대응 중소기업 융자 제도 6월부터 시행** - 구마모토현은 15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현 융자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 관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5천만 엔을 상한으로 융자 제공. 금리는 통상보다 0.2% 포인트 낮게 설정되어, 융자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연 1.7% 적용 -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여 구마모토현은 4월 3일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자동차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 수주 감소에 따른 운전 자금 확보 등에 대해 현재까지 8건의 상담이 접수된 상황. 키무라 타카시 지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불합리한 관세이지만 일본이나 아시아에서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TSMC(대만 반도체 제조)도 일본 투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는 견해를 표명 - 반도체 분야와 관련하여, 6월 초에 산학관 연계를 통해 국가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계획도 밝힘. 이처럼 구마모토현은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드론×AI'로 스마트 농업: 일본공업대학, 수분 작업 자동화 추진 - 과수원이나 채소밭을 드론이 날아다니며 사람이나 벌 대신 수분하는 기술의 실용화가 가까워지는 중. 연구를 진행하는 곳은 일본공업대학(사이타마현 미야시로마치). 인공지능(AI) 기술로 수분 가능한 꽃을 판별하고, 드론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수분하는 기술 개발 - 4월 중순, 새하얀 배꽃이 만발한 밭에서 드론 한 대가 이륙. 나무 줄을 따라 비행하며 탑재된 분무기에서 꽃을 향해 꽃가루를 분사. 이 실증 실험은 사이타마현 쿠키시의 사이타마현 농업 기술 연구 센터 시험장에서 실시 - 드론을 이용한 수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AI를 사용하여 수분 가능한 꽃을 판별하는 기술. 미리 수분 최적 시기 꽃 이미지를 AI에 학습시켜,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수분 적합 꽃을 선별. 동시에 꽃의 위치 정보도 분석하여 수분할 꽃을 결정. 둘째는 이동 범위가 한정되고 장애물이 많은 과수원이나 밭에서 드론을 정확하게 비행시키고 목적 꽃에 수분하는 무선 통신 기술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러시아와 석유·가스·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모색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5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천연가스 및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합작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Petronas)는 러시아 에너지회사 로스네프트(Rosneft)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러시아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Gazprom)과의 협력도 확대하는 상황 - 러시아는 말레이시아에 상당량의 석유 제품과 석탄을 공급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말레이시아 내 합성고무 공장이 건설된 바 있음.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와 농업용 칼륨 및 질소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비료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러시아는 이슬람 할랄 기준에 부합하는 곡물, 육류, 유제품 등 농산물 수출을 확대 - 2024년 기준 러시아는 말레이시아의 유럽 교역국 중 9위를 기록했으며, 양국 간 총 교역액은 114억 6,000만 링깃(약 3조 4,800억 원)을 기록. 말레이시아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전기·전자 제품, 기계·장비 및 부품, 가공식품 등.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비즈니스협회, 말레이시아 기관들과 20건의 양해각서 체결 - 지난 5월 13일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비즈니스협회(MCBA)는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위해 20개 말레이시아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비료, 엔지니어링, 전기,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말레이시아 기업 100개사 이상이 캄보디아 시장 진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 리키 야우 MCBA 회장은 2025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프놈펜에서 개최될 말레이시아-캄보디아 투자 무역 사절단 파견 계획을 발표.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간 교역 확대, 투자 유치, 혁신 교류, 인적 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정 - 리키 야우 회장은 캄보디아가 낮은 진입 장벽과 인증·규제 요건 완화를 갖춰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투자·무역 시장임을 강조. 캄보디아는 100% 외국인 소유 기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이를 통해 캄보디아 내 중소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한국 개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서 다자 무역 강화 추진 -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5월 15일부터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말레이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 회의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관세 협상, 국경 간 무역 장벽 등의 현안과 함께 인공지능과 인구 구조 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 - 말레이시아는 한국이 제시한 '연결성, AI 혁신, 지속가능한 무역'이라는 주제에 맞춰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APEC 회원국들은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IFD)에 대한 지지를 표명 - 자프룰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무역 관계 및 관련 협정 세부 사항을 논의. 또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며, 자프룰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 이는 말레이시아가 역내 및 국제 무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
태국	❍ 태국, 50억 바트 규모 디지털 투자 토큰 발행 추진 -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재무부 장관은 5월 13일 향후 2개월 내 50억 바트(약 2,100억 원) 규모의 신규 디지털 투자 토큰인 'G 토큰(G Token)' 발행 계획을 발표. 이번 계획은 각료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행 예산 차입 계획에 따라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목표. G토큰은 채무 상품에는 해당하지 않음 - G토큰은 투자자들에게 일반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도록 설계. 최초 발행은 시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50억 바트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충족. 이 조치는 태국 정부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통해 자금 조달의 다각화를 꾀하는 모습 - G토큰 발행은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부친인 탁신 친나왓이 정부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발행을 제안한 이후 태국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디지털 자산 정책. 이번 태국의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와 경제 상황을 반영한 역내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평가
캄보디아	❍ **캄보디아, 한국과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 지난 5월 12일 헹 쑤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프놈펜에서 열린 캄보디아 국립폴리테크닉대학(NPIC)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비롯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기념식에는 박종욱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한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 - 2005년 한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NPIC는 8개 학과 200명의 학생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24개 학과에 수천 명의 학생을 보유한 캄보디아 주요 직업 훈련 기관으로 성장. 현재 NPIC는 첨단 기술 분야의 우수한 교육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 - 헹 쑤어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기술 인력 150만 명 양성을 목표로 기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캄보디아의 기술 교육과 인력 양성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부연. 이
	❍ **캄보디아, 농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통해 프놈펜에서 농업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이틀간 워크숍을 개최. 이번 행사에는 정책 입안자, 기술 전문가, 개발 파트너들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의사결정 개선을 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한 디지털 도구 활용 방안을 논의 - 캄보디아 관계자들은 FAO와 트웬테대학이 공동 개발한 위성 데이터 기반 AI 도구인 '벼 경계 인식 모델'에 대한 교육을 받음. 이번 교육을 통해 '바이오차(Biochar)' 시장 확대 지원 사례와 함께, 농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글 어스 엔진(Google Earth Engine), 구글 코랩(Google Colab), AI 도구의 실용적 활용 방안이 소개 - 워크숍에서는 캄보디아 농업 부문의 회복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장기적 제도적 프레임워크에 통합할 필요성이 강조. 참가자들은 정밀 매핑을 위한 AI, 위성 기반 작물 모니터링, 수확량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데이터 격차 해소와 포용적 농업 성장지원을 목표
라오스	❍ **라오스 비엔티안 남부역, 동남아시아 과일 물류 허브로 부상** - 2025년 5월 기준, 라오스 비엔티안 남부역은 하루 2,000톤 이상의 열대 과일을 처리하며 동남아 지역 핵심 철도 유통 허브로 자리매김. 라오스-중국 철도공사(Lao China Railway Company)에 따르면 지난 2025년 4월 한 달 동안에만 2만 톤 이상의 과일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 비엔티안 남부역은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에서 생산되는 두리안, 망고 등 인기 열대 과일의 대중국 수출 거점 역할 수행. 철도 운송을 통해 기존 5~7일 소요되던 운송 시간이 55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어 부패율 감소품질 유지가 가능 - 과일 물류 증가는 지난 2023년 2월 7일 개통된 중국-라오스-태국 철도 화물 서비스의 성공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 첫 운행 열차는 쿤밍에서 비엔티안까지 286톤의 채소를 운송했으며, 화물은 타날렝 역에서 태국 열차로 환적되어 방콕까지 운송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라오스	❍ 라오스, 수출 확대를 위한 할랄 인증 프로젝트 착수 - 라오스 중소기업진흥청(MSMEs Promotion Agency)은 5월 12일 수출 확대를 위한 '할랄 인증 생산성 향상 시범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 아시아생산성기구(APO)는 동 프로젝트에 13만 달러(약 1억 8,2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함. 이는 라오스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 - 말라이통 콤마시트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산성 향상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 정부는 무슬림 시장으로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베운캄 솔트(Veunkham Salt Company), 솜사이 커피(Somxay Coffee Company), 다오 허앙 그룹(Dao Heuang Group) 등 3개 제조업체를 선정 - 할랄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라오스 정부는 할랄 인증 획득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할랄 산업과 관련한 광범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 라오스는 지난 2023년 6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와 협력하여 자국 제품의 할랄 인증 획득 방안을 논의하고 할랄 산업 발전을 표명한 바 있음
베트남	❍ 베트남, 자동차 산업 성장 가속화 속 도전과제 직면 -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5년 총산업물량(TIV) 성장률이 22%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는 싱가포르에 이어 역내 두 번째로 높은 수치. 이러한 성장은 정부의 산업 우호적 정책, 외국인 투자 증가, 전기차(EV) 부문의 소비자 수요 증가에 기인 - 한편,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생산 부품 중 20%만이 현지로부터 조달되는 등 낮은 현지화율문제에 직면. 베트남의 전기차 제조업체 빈패스트(VinFast)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등 국제 무역 긴장 심화 이후,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아시아 시장에 주력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국가 산업화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국내 수요의 70%를 충족시키고 약 37,000대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 아울러, 세제 혜택과 자유무역 협정 등 지원 정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글로벌 자동차·전기차 공급망으로의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베트남·러시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정 체결 가속화** - 지난 5월 11일 베트남과 러시아는 베트남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정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핵·방사선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이는 베트남의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 - 베트남 정부는 전력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약 10년 전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소 개발 계획을 재개. 재개된 계획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 총 6.4G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목표. 이로써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 - 원자력 발전소 개발은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 베트남은 전력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빠르게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